<h1>나 혼자만 레벨업-54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i7a336dc8d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4화</p>  
<p>[스킬: 그림자 저장 Lv.1]</p>  
<p>직업 전용 스킬.</p>  
<p>소모 마나 없음.</p>  
<p>그림자 병사들을 시전자의 그림자 속에 흡수하여 저장해 둡니다.</p>  
<p>저장한 병사들은 시전자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소환이나 재흡수가 가능합니다.</p>  
<p>저장해 둔 그림자 수: 0 / 20</p>  
<p>'역시.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스킬명이 '저장'이라 병사들을 보관하는 용도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다.</p>  
<p>하지만 예상을 벗어난 부분도 있었다.</p>  
<p>'정원이 하필...'</p>  
<p>저장할 수 있는 그림자 수가 만들 수 있는 그림자 수보다 적었다.</p>  
<p>만들기는 30명을 만들었는데, 20명만을 저장할 수 있단다.</p>  
<p>그러니까 10명을 또 버려야 하는 것이다.</p>  
<p>'곤란하네.'</p>  
<p>열 손가락 중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다고.</p>  
<p>하나도 가슴 아팠는데 이제 열을 버리라니.</p>  
<p>'흠...'</p>  
<p>진우는 씁쓸한 마음으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기사급인 이그리트는 당연히 제외.</p>  
<p>보직이 다른 마법병 셋도 뺀다.</p>  
<p>만만한 건 역시 보병들.</p>  
<p>아까는 가장 앞에 있던 병사 하나를 선택했으니, 이번엔 뒤쪽에 있는 병사 열을 추출 해제시켰다.</p>  
<p>'미안.'</p>  
<p>잠깐 명복을 빌어 주고.</p>  
<p>슈우우욱-</p>  
<p>순식간에 병사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.</p>  
<p>그래도 처음보단 아쉬움이 덜했다.</p>  
<p>이별에 익숙해진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뜻일까.</p>  
<p>어쨌든.</p>  
<p>진우는 남은 병사들을 둘러보며 '그림자 저장'을 시전했다.</p>  
<p>그러자 이그리트를 비롯한 그림자 병사들이 고온에 얼음이 녹아내리듯 그림자로 돌아갔다.</p>  
<p>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자들이 속속들이 발밑으로 모여들었다.</p>  
<p>'이게 그림자 흡수...!'</p>  
<p>단어 그대로였다.</p>  
<p>그림자들은 진우의 그림자에 스며들듯 흡수되었다.</p>  
<p>찰나의 시간.</p>  
<p>눈 한 번 깜짝할 사이 병사들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.</p>  
<p>'...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군.'</p>  
<p>진우는 신기하다는 듯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기다렸다는 듯이 기계음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직업 전용 스킬들을 전부 사용해 보셨습니다.]</p>  
<p>[전직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[출구용 게이트가 생성됩니다.]</p>  
<p>'드디어 끝난 건가...'</p>  
<p>길고 힘든 과정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감회에 찬 시선으로 던전 내부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전투의 증거가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다.</p>  
<p>부서진 기사들.</p>  
<p>금이 간 벽면.</p>  
<p>반파된 기둥.</p>  
<p>기둥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자 지금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 버린 아이언 골렘까지.</p>  
<p>하지만 고생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.</p>  
<p>새로운 직업과 스킬들.</p>  
<p>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과 강력한 아군들.</p>  
<p>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진우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.</p>  
<p>바깥으로 연결된 게이트는 무사 귀환을 축하라도 해 주는 것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그리고 한걸음 내딛자 순식간에 배경이 바뀌었다.</p>  
<p>동네 아산의 공터였다.</p>  
<p>처음 전직 퀘스트를 수락했던 그곳.</p>  
<p>벌써 오전 5시.</p>  
<p>어느덧 동이 틀 무렵이었다.</p>  
<p>아차.</p>  
<p>시계를 들여다보던 진우가 속으로 혀끝을 찼다.</p>  
<p>'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 진아한테 미리 연락해 둘걸.'</p>  
<p>그래도 다행인 건 협회 일을 할 때도 레이드가 길어져 종종 늦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방금 빠져나왔던 게이트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'허...'</p>  
<p>게이트가 감쪽같이 사라진 장소를 보고 있자니 마치 꿈이라도 꾸고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꿈이라고?</p>  
<p>아니, 그럴 리가.</p>  
<p>진우가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.</p>  
<p>칠흑의 갑주를 걸친 병사들.</p>  
<p>속으로 떠올리자마자 그림자 속에서 소환된 병사들이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처음엔 이 녀석들을 괴물이라고 생각했다.</p>  
<p>그림자 병사.</p>  
<p>죽은 이의 그림자에서 부름을 받고 걸어 나오는 괴물들.</p>  
<p>하지만 이들이 괴물이라면 이들을 마음대로 만들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?</p>  
<p>진우는 씩 웃었다.</p>  
<p>'뭐,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만...'</p>  
<p>진우는 병사들을 다시 그림자 안으로 불러들였다.</p>  
<p>비탈길을 내려가는 걸음이 더할 나위 없이 가볍게 느껴졌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늦은 시간까지 단잠에 빠져 있었다.</p>  
<p>그도 그럴 수밖에.</p>  
<p>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는 이미 날이 훤히 밝아 있었으니.</p>  
<p>따라란~ 따라란~</p>  
<p>진우의 잠을 방해하는 건 휴대폰 기본음 벨소리였다.</p>  
<p>머리맡을 더듬던 손이 어렵게 폰을 쥐었다.</p>  
<p>진우는 눈도 뜨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"여보세요?"</p>  
<p>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.</p>  
<p>-헐... 오빠 아직도 자는 거야? 지금이 몇 신데!</p>  
<p>수화기 너머에서 진아가 놀란 듯 물었다.</p>  
<p>그래서 되물었다.</p>  
<p>"지금이 몇 신데?"</p>  
<p>-오후 2시!</p>  
<p>"뭐?"</p>  
<p>실눈으로 휴대폰 액정의 시간을 바라봤다.</p>  
<p>진짜였다.</p>  
<p>-...오빠 오늘 학교 와야 하는 거 기억하고 있지?</p>  
<p>걱정스런 목소리.</p>  
<p>진우는 그제야 느릿하게 상체를 일으켰다.</p>  
<p>"언제까지 가면 돼?"</p>  
<p>-5시!</p>  
<p>"안 늦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."</p>  
<p>-역시 오라버니! 근처 오면 나한테 전화 줘!</p>  
<p>동생이 애교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긁적긁적.</p>  
<p>부스스한 머리를 긁적거리던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다.</p>  
<p>지금부터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했다.</p>  
<p>'그래도 동생 담임선생님을 뵈러 가는 건데.'</p>  
<p>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고3 시기를 담당할 선생님을.</p>  
<p>'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는 없겠지?'</p>  
<p>옷장을 열어서 옷을 뒤적거렸다.</p>  
<p>퀴퀴한 옷 냄새.</p>  
<p>그리 좋은 향은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는 미간을 좁혔다.</p>  
<p>뒤적뒤적.</p>  
<p>열심히 찾아봤지만 입고 갈 만한 옷이라곤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한번 입고 놔뒀던 낡은 양복이 다였다.</p>  
<p>'입을 수 있으려나?'</p>  
<p>혹시나 해서 입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, 꽉 조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.</p>  
<p>'확실히 체격이 많이 커졌네.'</p>  
<p>예전 옷을 입어 보니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.</p>  
<p>옷이 터질 것 같았다.</p>  
<p>...이제 어떡한다?</p>  
<p>입고 나갈 옷을 고민하던 진우의 눈에 마침 유진호에게서 받았던 통장이 들어왔다.</p>  
<p>마정석을 처분한 돈이 입금된 통장이었다.</p>  
<p>터질 듯이 팽팽한 옷과 도장이 동봉된 통장을 번갈아 보던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'간만에 쇼핑이나 할까?'</p>  
<p>하지만 그전에 확인할 것이 조금 있었다.</p>  
<p>아니, 조금이라기엔 아주 많이.</p>  
<p>진우는 터질 것 같은 양복을 벗어두고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로 상태창을 불러 왔다.</p>  
<p>'상태창.'</p>  
<p>눈앞에 긴 문자열이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51</p>  
<p>직업: 그림자 군주</p>  
<p>칭호: 늑대학살자 (외 1)</p>  
<p>HP: 11,035</p>  
<p>MP: 1,022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32 체력: 91 민첩: 111 지능: 70 감각: 93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1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46%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, 상급 단검술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2, 살기 Lv.1, 은신 Lv.1, 급소 찌르기 Lv.1, 단검 투척 Lv.1</p>  
<p>[직업 전용 스킬]</p>  
<p>액티브 스킬: 그림자 추출 Lv 1, 그림자 저장 Lv.1</p>  
<p>[착용한 아이템]</p>  
<p>붉은 기사의 투구(S), 파수꾼의 목걸이(A), 상급 기사의 흉갑(B), 상급 기사의 건틀릿(B), 상급 마법사의 반지(B), 중급 자객의 신발 (C)</p>  
<p>"허어..."</p>  
<p>끝도 없이 이어지는 상태창을 보고 진우는 혀를 내둘렀다.</p>  
<p>'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.'</p>  
<p>그런 시절도 분명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은 스킬과 아이템 목록만으로도 눈이 어지러웠다.</p>  
<p>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란만큼은 확연히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[직업: 그림자 군주]</p>  
<p>전날까지 '없음'으로 기록되어 있던 공간이었다.</p>  
<p>실은 상태창을 볼 때마다 이 '없음'이란 단어가 적잖이 신경 쓰였다.</p>  
<p>'없음' 앞에 오는 단어가 직업이었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그렇지 않아도 헌터는 레이드를 하지 않을 때는 백수와 별반 다를 게 없다.</p>  
<p>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그렇다.</p>  
<p>그런데 능력치가 기록된 상태창에서조차 '직업 없음'이라는 글귀를 봐야 했으니 어찌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.</p>  
<p>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, 직업칸을 확인할 때마다 뜨끔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다.</p>  
<p>그게 진짜 직장이 아닌 걸 알고 있어도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하지만 오늘부로 그런 걱정은 깔끔하게 덜게 되었다.</p>  
<p>하하!</p>  
<p>진우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흘렸다.</p>  
<p>'이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겠지.'</p>  
<p>그간에 다른 헌터들처럼 목돈을 뭉텅이로 벌어 왔으면 레이드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내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는 없었을 터.</p>  
<p>그러나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.</p>  
<p>남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이 헌터임을 밝힐 수 없었다.</p>  
<p>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E급이었으니까.</p>  
<p>-E급 헌터입니다.</p>  
<p>이 말을 했을 때.</p>  
<p>헌터에 대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앞에서는 힘든 일을 한다고 추켜세우면서도 뒤로 가서는 조소를 날렸다.</p>  
<p>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다.</p>  
<p>그런데 이제는 멋진 직업, 아니 확실한 특성이 생겼다.</p>  
<p>직업은 여전히 헌터고.</p>  
<p>굳이 표현하자면 '그림자 군주'라는 특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편이 옳으리라.</p>  
<p>'비록 내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었지만...'</p>  
<p>그래도 후회는 없었다.</p>  
<p>아니, 대만족이었다.</p>  
<p>여기가 방 안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그리트와 그림자 병사들을 불러내고 싶었다.</p>  
<p>병사들의 전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.</p>  
<p>만약 그들이 생전의 힘을 백 퍼센트 전부 다 발휘할 수 있다면?</p>  
<p>'설마 그렇지는 않겠지.'</p>  
<p>하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두근두근.</p>  
<p>진우는 가만히 심장 박동을 느끼며 머릿속으로는 레이드할 때의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.</p>  
<p>문득 유진호의 반응이 궁금해졌다.</p>  
<p>피식.</p>  
<p>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할 유진호를 떠올리니 웃음이 절로 새어 나왔다.</p>  
<p>가만.</p>  
<p>'그러고 보니.'</p>  
<p>사망한 대상을 전력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면, 그리고 그 대상이 몬스터나 마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...</p>  
<p>'죽은 헌터의 그림자에서도 병사를 뽑아낼 수 있는 거겠지?'</p>  
<p>당연하지만,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던 상상.</p>  
<p>죽은 사람의 그림자에서 부름을 받고 걸어 나오는 언데드 병사라니.</p>  
<p>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했다.</p>  
<p>그러나.</p>  
<p>그럼에도 불구하고.</p>  
<p>'만약 A급이나 S급 헌터의 그림자를 얻을 수 있다면?'</p>  
<p>그 전력은 상상을 초월할 터.</p>  
<p>실력을 생전의 백 퍼센트가 아니라 50퍼센트만 발휘할 수 있어도 그림자들을 데리고 상급 던전을 털어 버리기에 충분했다.</p>  
<p>가볍게 뛰던 심장의 박동이 거세졌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!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그래도 사람을 가지고 언데드화시키는 건 좀...'</p>  
<p>몹쓸 짓이었다.</p>  
<p>아무리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짓까진 하고 싶지 않았다.</p>  
<p>그런 짓을 당해도 싼 놈이 나타나준다면 모를까.</p>  
<p>'하지만 같은 헌터끼리 싸울 기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.'</p>  
<p>막상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가지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인간은 몬스터나 마수가 아니니까.</p>  
<p>그래.</p>  
<p>일단은 지금의 병사들로도 만족했다.</p>  
<p>'보스몹급이었던 이그리트도 손에 넣었으니.'</p>  
<p>레벨 7의 기사 등급 그림자 병사.</p>  
<p>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일까?</p>  
<p>진우는 문득 다음 레이드가 기다려졌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